

# 은행

## 신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향해

### 은행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 ▶ 금융규제혁신안의 핵심, 은행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차 금융규제 혁신 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대표적으로 은행은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통합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출시 가능.

해외 금융사들은 유니버설 뱅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 대표적으로 일본의 라쿠텐 은행은 지주 계열사들을 활용해 원앱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 중.

#### ▶ 신한지주 Digital Day 개최 (11월 9일)

전일 신한지주 Digital Day를 개최함으로써, 그룹 디지털 전략을 공유.

#### - 신한 ‘디지털 SI펀드’ 운영

신한지주는 6,000억원의 디지털 SI펀드를 조성 및 이커머스, 블록체인,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23개 기업에게 2,361억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 (22년 10월 기준). 이를 통해 1)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선도기업 투자로 금융 이니셔티브 확보, 2)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혁신적 상품/서비스 발굴 기반 확보, 3) 대규모 MAU 플랫폼의 트래픽을 활용함으로써 그룹 MZ세대 고객 확보 등을 기대 가능.

#### - 내년 여름 ‘신한 유니버설 앱’ 출시 예정

신한지주는 내년 여름 ‘신한 유니버설 간편 앱’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할 것임을 언급. 현재 신한이 제공하고 있는 1,400여개의 서비스 중 핵심만을 유니버설 간편 앱에서 제공. 그 밖의 서비스는 각 계열사의 대표 앱 <SOL(은행) pLay(카드) 알파(증권) 스퀘어(보험) 등>을 연결해서 제공하는 두 포지션을 취할 예정.

#### ▶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의 DT전략

현재 각 금융지주사들은 매분기 IR PT 자료를 통해 디지털 전략을 공유하는 등 DT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중. 빅테크와는 달리 여러 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는 강점을 활용해 1) 금융기능 통합 앱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2) 비금융과의 결합(KB금융 - 알뜰폰 / 신한지주 - 뽕겨요, 하우핏)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중.

향후 이를 통해 1) 편의성 증대 통한 고객 기반 확대, 2)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활용함으로써 그룹 데이터댐 구축 및 새로운 기회 창출 (Ex. 배달앱 뽕겨요를 통한 자영업자 대출 제공 등), 3) 전략적 비용절감 성과 등을 기대 가능.

표1 주요 금융규제혁신안

구분	지원안	특징	
금융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은행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 통합업 제공
	보험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헬스케어 업무는 다른 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
	카드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카드사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플랫폼서 예금/보험/P2P 비교 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활용한 시범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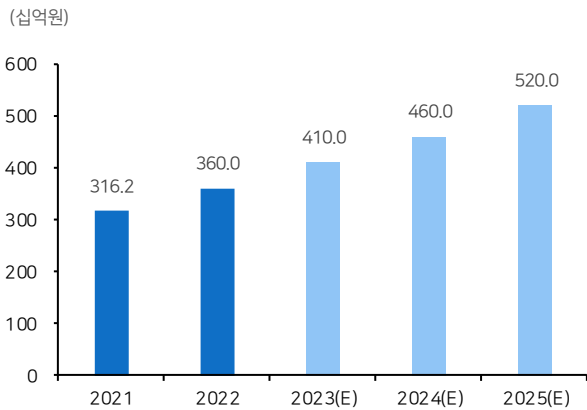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2 글로벌 디지털 유니버설 뱅킹 대표 사례

원업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	영국	레볼루트	금융슈퍼앱 지향 수신, 여신, 카드 외 주식, 구독서비스, 암호화폐 등
	일본	라쿠텐 은행	라쿠텐 그룹이 2010년 eBank 인수 계열사 은행, 보험, 증권 등 연결해 포인트 통합 은행과 증권사 간 연계서비스 제공, 양사 계좌 보유고객에게 우대금리
비금융서비스 진출	싱가폴	DBS은행	DBS Marketplace 운영 제휴기업 400개 이상: 부동산, 자동차 구매, 항공 및 호텔 예약 등
	인도	SBI은행	자사업 내 택시, 예약, 여행, 대리점 등 제공
	일본	유초은행	실질적 유통업 진출: 지역상사 운영

자료: 각 사, 언론보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신한지주 DT 전략적 비용절감 성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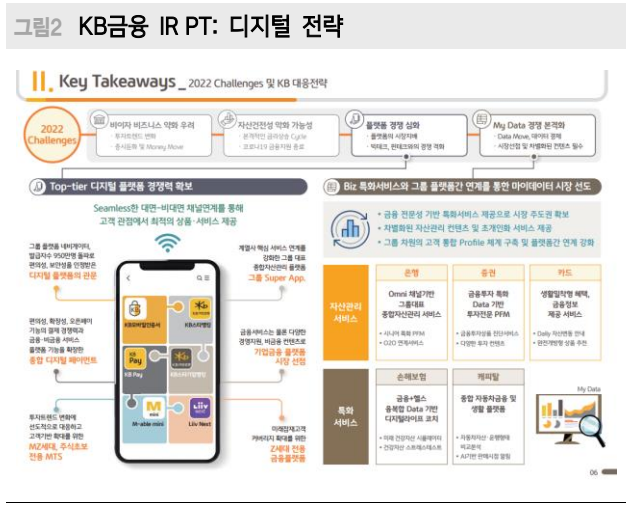


자료: 신한지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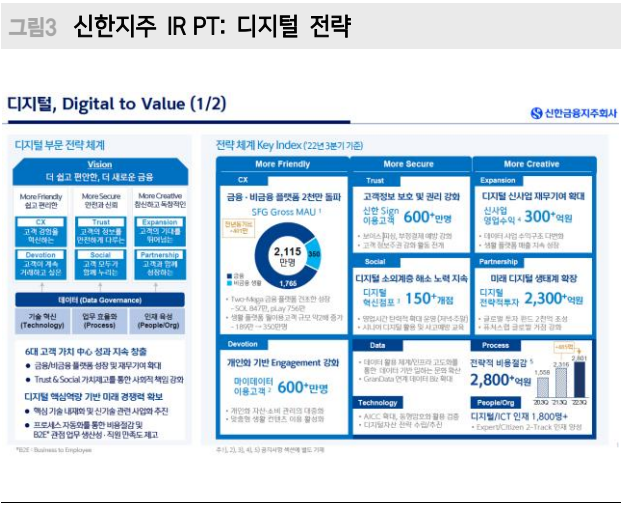
표3 신한지주 SI펀드 투자 업체

분야	기업
Core tech	블록오디세이, 쿼터백, 자이냅스
모빌리티	갯차, 오토한즈
헬스케어	참헬스케어, 에비드넷
디지털 자산/메타버스	쟁글, 갤럭시 코퍼레이션, 서울옥션블루
O2O	생각대로, 42dot
펫코노미	펫이지
이커머스	에이블리, 발란, 번개장터
프롭테크	아마트먼트리, 홈즈컴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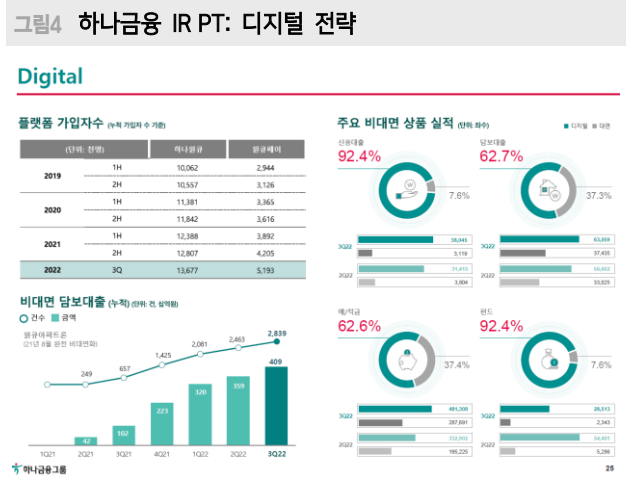
자료: 신한지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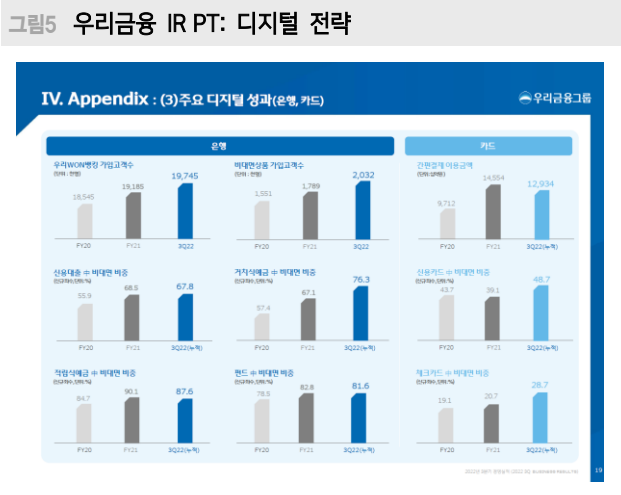
자료: KB금융,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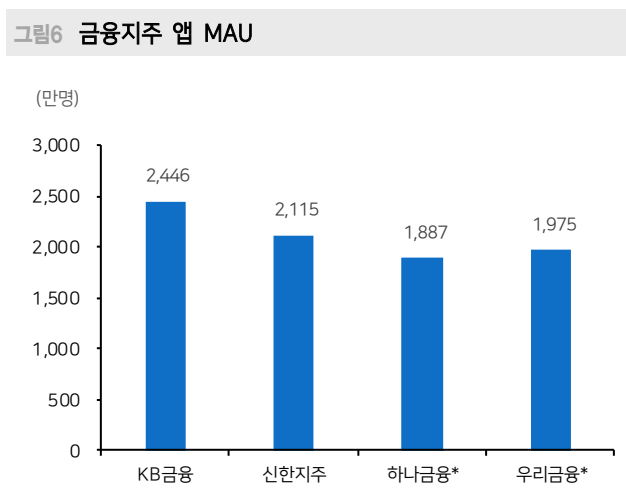
자료: 신한지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하나금융,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우리금융,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3Q22 및 지주 환산 기준 / \*가입고객 수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